

동구-몽골 울란바토르市, 축제·문화예술 상호 교류 협약 체결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의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해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市 나담축제 사절단과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와 '몽골 나담 축제' 간 상호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임택 구청장과 몽골 울란바토르市 수도문화예술부장 샌드 아유-쉬(ENKHTAIVAN TSEND-AYUSH)

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기관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두 기관은 양 도시 간 축제 운영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책 정보·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고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와 '몽골 나담 축제' 기간에 맞춰 상호 문화예술공연단을 교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구가 '광주 문화예술공연단'을 파견하게 될 '몽골 나담 축제'는 오는 8월 16~17일 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

리며, '나담(Naadam)'은 몽골어로 '놀이·경기'를 의미한다. 축제의 정식 명칭은 '남자들의 3가지 경기'라는 뜻의 '에링 고르봉 나담'으로 몽골 씨름·말타기·활쏘기 등 3가지 전통 경기가 중심을 이루며 몽골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나담축제에 참가하는 '광주문화예술공연단'은 광주미디어아트와 전통 민속예술을 결합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동구의 문화 인프

라와 노하우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택 청장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광주 동구의 위상을 알리고 양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동반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며 "단발적인 교류를 넘어 양 기관이 실제적이고 중장기적인 우호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남구,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우수기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정부 주관 '2023~2024년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과 지역별 위기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발굴사업 실적, 민·관 협력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도까지 4개 지표를 반영했다.

남구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특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수기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고독사 예방 방지를 위한 자

체 사업인 3-24H 안부 시스템과 오갈 곳이 마땅치 않은 주거 위기에 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으뜸호 남구 안심돌봄 주택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3-24H 안부 시스템은 관내 17개 동에서 취약계층 가구와 결연을 맺은 주민 577명이 3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가정방문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안부를 확인한 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응급조치까지 마무리하는 특별 관리 시스템이다.

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안부 파악에 나섰으며, 다행히 긴급 도움을 필요로 한 주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떻게 남구 안심돌봄 주택은 화재와 수해 등의 사유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주민의 주거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지난 2023년 12월부터 백운동 등 관내 5곳에서 돌봄 주택 9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희태 기자

광산구, (주)GS리테일과 노인 일자리 활성화 협약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주)GS리테일, 광산시니어클럽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주)GS리테일의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주)GS리테일은 올해 초 광산구 우산동에 광주 1호 '시니어동행편의점'을 열었다. 현재 12명의 어르신이 선발돼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와 광산시니어클럽은 '시니어동행편의점'을 중심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우수 인력 모집, 사업 홍보 등을 돕기로 했다.

(주)GS리테일은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위한 점포 배정 적극 협력, 편의점 이미지 개선 및 환경 조성, 가맹비 제외, 전대 보증금 등을 약속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 '시니어동행편의점'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다양한 기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 앞두고 민관협력 장애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 서구는 최근 서구청 들볼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와 함께 '미리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서구청 제공

서구, 장애 체험하며 '미리 장애인의 날'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 앞두고 민관협력 장애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 서구는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와 함께 '미리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장애감수성 향상 및 공직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서구 장애인 정책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됐으며 ▲업무 중 공직자 휠체어 체험 ▲장애당사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식개선 스포츠 체험(소다운, 보치아, 볼링) ▲구청장과 함께하는 장애체험 현장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김이강 서구청장과 공직자 15명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구청 곳곳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생각

카드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체험이 끝난 후 경험한 수기를 나누며 현실적 차원의 정책 제안을 펼치는 공감 토크쇼를 진행했다.

김이강 청장은 "누구나 함께 불편 없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인식개선을 비롯해 서구 사업 전반에서 '무장애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가명 기자

북구,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 개최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제2회 도서관의 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5개(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 구립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의 날은 매년 4월 12일로 도서관에 대한 주민 이해와 관심을 높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며 이를 축하하고자 도서관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이 도서관주간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에 북구 5개 구립도서관은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을 주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주제로 ▲강연 5개 ▲체험 12개 ▲전시 10개 ▲기타 13개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중흥도서관에서는 '신민재 작가와의 만남', '우리는 책과 함께하는

가족' 등 10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일곡도서관에서는 '한얼 작가와의 만남', '나만의 북커버 만들기' 등 7개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운암도서관은 '이승희 교수 인문학 특강(예술가의 연인들 사랑과 욕망을 그리다)', '아로마 모스큐브 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을, 양산도서관은 '북구문화센터 연계 강연 문선희 작가와의 만남', '책갈피 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용도서관에서는 '조숙경 교수 강연(노벨상도 작은 만남에서 시작됐다)', '힐링 오일파스텔 드로잉' 등 7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북구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서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섭 기자

공정과 상식